**인공지능 개론**

20221894 AI 융합학과 박수민

내가 인공지능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는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 된다.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라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인공지능을 접하게 되었는데, 뉴럴링크는 인공지능에 대항하기 위한 회사이다. 나는 이 회사를 보고 “왜 굳이 인공지능을 대항해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보다 인공지능을 공부하여 인공지능을 지배하고 싶다고 느껴 인공지능을 전공하게 되었다.

수업을 듣고 나서, 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인공지능은 그저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하여 일정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기계로만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하여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사람같이 생각하는 것”,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와 같이 인공지능의 여러 관점을 보고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커즈와일은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와 비슷하여 커즈와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또한 엘런 튜링은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이번 수업으로 인하여 더욱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엘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와 같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의 AI 기술과 윤리적 고려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과 응용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특히, 엘런 테스트는 인간과 기계의 구별 없이 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AI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동시에 현실과의 갭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수준의 지능과 감정을 갖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른다.

나는 AI의 발전이 놀라울 뿐 아니라 두려움도 느낀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는 윤리적인 고민과 위험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든 이후의 인류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민과 불안 속에서도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의학,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혁신과 발전을 이끌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간성과 윤리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는 끝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어느 때보다 흥미롭고 도전적일 것이다.